

기독교경영연구원

Korean Christian Academy of Management



배종석

필자는 한국에서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시작되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줄곧 신앙과 학문은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듣고 대학과 대학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던 중에는 지금 서울대에 재직중인 친구 성영은 교수와 함께 기독교학문연구회를 조직하여 몇 년간 같이 책을 읽고 토론을 했었다. 그러던 중 KOSTA(유학생대상 신앙집회)에서 강사로 오신 대학 은사님이신 김인수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국에서 경영학자들의 모임이 있으며, 이 모임에서 리처드 추닝이 편집한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The Practice>(기업경영과 성경적 원리)를 번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학위를 받고 바로 한양대에 재직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정화 교수님을 만나 바로 기독교경영연구원(기경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초기 경영학자들의 연구모임은 “기

독교경영연구회”(기경연)였고 1991년에 시작되었다. 5년간의 기경연 시절을 지나고 좀더 체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1996년에 기경원이 설립되었다. 기경원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기업경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시고
기업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현재 기경원에 참여하는 그룹은 경영학자, 기독교실업인, 전문인(회계사, 컨설턴트, 변호사등), 젊은 직장인, 목회자, 학생 등이다. 기경원은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기업경영을 조망하며, 성경적 경영원리를 연구, 개발하고 이를 교육활동 및 자문활동을 통하여 기업경영 및 조직운영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탁월성과 윤리성을 갖춘 기업과 조직이 발전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전문기관이다. 작년에 15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





사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초대원장인 이장로 교수님을 시작으로 박의범 교수님, 황호찬 교수님, 한정화 교수님 등이 원장으로 섬겨왔다. 기경원이 한가지 자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은 지난 역사 동안 매달 모이는 기독교경영포럼을 끊임 없이 지속해왔다는 점이다. 다양한 강사들께서 참여해주셨다.

사실 요즘은 기업경영도 패러다임이 바뀌어 이해관계자 모델이 강조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명성, 신뢰경영, 섬김의 리더십, 공정성 이론 등 가치와 원리를 중시하고 성경적 원리에 근접한 접근들을 하고 있어서 현상적으로는 기경원의 활동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경원은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꾸준히 성경적 원리와 가치를 중시하고 그것이 기업이라는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들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기경원의 사역은 크게 연구, 교육, 자문과 실천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연구영역을 보면, 가장 큰 변화는 외국책 번역을 하던 데서 이제 독자적으로 우리의 연구서적들을 꾸준히 발간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특히 <기독교경영 JusT ABC>(2010)라는 책은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기경원이 힘을 합쳐 성경에서 도출한 경영을 위한 다섯가지 원리를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그 다섯가지 원리는 창조(creation), 책임(accountability), 배려(benevolence), 공의(justice) 및 신뢰(trust)이다. 이들 원리들의 영어 이니셜을 따서 'JusT ABC'로 부르고 있다. 또한 현재 일년에 두차례 CMR(Christian Management Review)이라는 저널을 발간하고 있으며, 기

기업경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시고 기업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독경영 관련 문헌을 종합정리한 <기독교경영문헌 100선>도 2011년에 발간하여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연구인력의 확충을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50여명의 연구위원을 확보하고 있다.

두번째는 교육영역인데, 주로 다음세대를 위한 사랑을 키우는 영역이다. 이 부분은 기독교경영아카데미, 기독교경영캠프, 기독교경영학회 등으로 삼각형을 그리고 있다. 기독교경영아카데미는 매년 2차례 봄, 가을에 개최하여 현재까지 27기 동안 450여명 이상이 수료하였다. 이들 수료생들은 기독교경영실천포럼(기경실)에서 자체적인 젊은 모임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매년 여름에는 기독교경영캠프를 통해 전국의 경영학도들이 함께 모여 기독교경영에 대한 관점을 확립하고 다음 세대의 리더로 준비되어가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한 기독교경영학회(ACM: Academy of Christian Management)는 각 대학의 경영학과의 학생학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기존선교단체와는 다르게 세미나만 하는데, 주로 기독교 세계관, 문화관, 학문관, 경제관, 기업관 및 기독교경영 등에 대해 책을 읽으면서 토론한다.

마지막 세번째 사역인 자문과 실천 부분에서는 기업, 비영리단체, 교회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조직에 초점을 두고 조직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을 실제로 돕기 위해 <조직건강지표>가 완성단

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기업을 진단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비영리단체들인 IVF, 한국누가회, CBMC, 성서유니온 등의 여러 단체들에 대한 조직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기독교병원협회와 협력하여 기독교병원들의 건강한 운영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건강한 교회>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목회자경영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기업조직의 회복과 비영리단체와 교회의 회복을 위한 별도의 컨설팅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고민 두가지는 기경원이 실제로 사회와 기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과 기존 핵심멤버들이 연령대가 높아지는데 젊은 학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데 있다. 또한 우리의 사역이 한국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권과 세계로 영향력을 끼칠 성을 소망하고 있다. 우리의 사역과 활동이 한국의 경제와 기업사회에 지극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며 그 뜻을 묻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을 또한 잘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며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다. **■**



배종석 기독교경영연구원 원장이며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인적자원관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였고 Fulbright Fellow로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서 방문교수로 안식년을 보냈다. 저서로는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IVP), 『기독교경영 Just ABC』 (예영), 『인적자원론』 (홍문사) 등이 있다.